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이 상 훈*

1. 머리말
2. 신립의 방어계획과 탄금대의 지형
3. 탄금대의 기상과 조선군의 방어체계
4. 탄금대 전투의 전개과정과 패배
5. 맺음말

1. 머리말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일본군이 쓰시마를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상륙한 일본군은 부산과 동래를 함락시킨 후 파죽지세로 북상하였고, 4월 28일 충주의 탄금대 전투에서 승리한 후 5월 3일에는 한양에 입성하였다. 임진왜란 초기 최대의 전투이자 조선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것이 바로 탄금대 전투이다. 신립(申訥)¹⁾이 이끄는 8,000명이 탄금대에서 일본군에게 패물당함으로써, 선조는

*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1) 신립은 1546년에 출생하여 1567년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 진주판관, 온성부사,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한성판윤으로 재직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都巡邊使가 되었다.

도성을 포기하고 북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다.²⁾

신립이 조령의 험준함을 포기하고, 탄금대에 배수의 진을 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명나라 장수인 이여송은 조령을 지나면서 “이런 천혜의 요새지를 두고도 지킬 줄 몰랐으니, 신립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며³⁾, 유성룡은 “신립은 원래 날쌔고 용감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전투의 계책에는 부족한 인물이었다”고 평하였다.⁴⁾ 정약용은 유배 가는 길에 탄금대를 지나면서 “신립을 일으키어 얘기나 좀 해봤으면, 어찌하여 문을 열어 적을 받아들였는지?”라며 탄식하였다.⁵⁾ 이렇듯 누가 보더라도 탄금대보다는 조령이 방어에 용이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신립은 왜 탄금대를 일본군과의 결전 장소로 선정하였을까? 신립이 조령을 포기하고 평지인 탄금대에 진을 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립이 과거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기병을 이용한 근접전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도 통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둘째, 일본군에 비해 병력수와 훈련도가 열세였기 때문에 이를 병사들의 투지로 극복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다.⁶⁾ 만약 신립이 탄금대에서 승리하였다면, 그의 작전은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다.⁷⁾

조선초기 주적은 북방 이민족이었고, 이들에 대한 방어 및 공격을 중심으로 조선군의 편제가 이루어졌다.⁸⁾ 기병과 보병은 동일한 비중으로

2) 왕조시대에 국왕과 직계 가족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조의 파친과 임해군 및 순화군의 근왕병 모집은 근본적으로 선조와 그 직계 가족의 안위를 확보하고, 왕실의 국난 극복을 술선하기 위한 당위성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신명호,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軍史』 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116쪽).

3)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일(경인).

4) 柳成龍, 『懲毖錄』, 서해문집, 2003, 64~68쪽.

5) 정약용 저(민족문화추진회 편), 『탄금대를 지나며(過彈琴臺)』, 『국역 다산시문집』 2, 서울출판사, 1994, 189~190쪽.

6) 이흥두, 『임진왜란초기 조선군의 기병전술』, 『白山學報』 74, 백산학회, 2006, 274쪽.

7) 신립이 패배하였기 때문에 조령에 진을 치지 않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것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임철호, 『신립설화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 『口碑文學研究』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379쪽).

8) 河且大, 『朝鮮初期 군사정책과 兵法書의 발전』, 『軍史』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0, 101쪽.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인 공격과 방어의 핵심은 기병이었다.⁹⁾ 남방의 왜구를 방어하는 데에도 기병은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⁰⁾ 그리고 일본군에 비해 병력수가 부족하고 훈련도가 낮은 급조된 병력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탄금대를 선택하였다고 이해된다.

신립은 당대 최고의 무장으로 일컬어졌고, 출전시에는 선조가 직접 보검(寶劍)을 하사하며 편의종사권(便宜從事權)을 부여한 인물이다.¹¹⁾ 이러한 인물이 조령의 이점을 포기하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이유로 기병 활용 외에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 신립의 구체적인 방어계획은 무엇이었고, 탄금대가 기병 활용 외에 어떠한 이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탄금대의 지형과 기상이 신립의 방어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실제 탄금대 전투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립이 조령을 포기하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이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2. 신립의 방어계획과 탄금대의 지형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일본군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다.¹²⁾ 먼저 소백산맥을 연하는 추풍령, 조령, 죽령을 잇는 지역에 횡적인

9)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7쪽.

10) 최형국, 「朝鮮時代 騎兵의 戰術的 運用과 馬上武藝의 변화 - 壬辰倭亂期를 中心으로 -」, 『역사와 실학』 38, 역사실학회, 2009, 6쪽.

11) 『선조실록』 권26, 선조25년 4월 17일(병오)에 따르면, 선조가 친히 신립을 전송하면서 보검을 하사하고, 신상처벌, 병력 동원, 군수물자 사용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도성 사람들이 모두 나와 이를 구경하였다고 한다.

12) 이와 관련하여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에서 연변의 통신체계와 제승방략에 의한 군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참고가 된다.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방어선을 형성하고, 대구에 집결한 경상도 군사들을 이일이 지휘하게 하여 일본군의 복상을 일단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¹³⁾ 그 다음 신립의 주력군¹⁴⁾으로 조령의 험난함을 이용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 후, 적의 예봉을 무디게 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¹⁵⁾ 그러나 상주에서 이일이 패배하자 조선의 방어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단월역에 주둔하고 있던 신립은 조령 방어를 포기하고, 충주성을 거쳐 탄금대로 이동하여 배수의 진을 쳤다.

적병이 충주(忠州)에 침입하였는데 신립이 패하여 전사하였다. 처음에 신립이 군사를 단월역(丹月驛)에 주둔시키고 몇 사람만 데리고 조령에 달려가서 형세를 살펴보았다. 얼마 있다가 이일(李鎰)이 이르러 꿇어앉아 부르짖으며 죽기를 청하자 신립이 손을 잡고 묻기를 “적의 형세가 어떠한소?” 하니, 이일이 말하기를 “훈련도 받지 못한 백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적을 감당하려니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신립이 쓸쓸한 표정으로 의기가 저상되자 김여물(金汝物)이 말하기를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예봉과 직접 맞부딪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험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역습으로 공격하자고 하였으나 신립이 모두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 지역은 기마병(騎馬兵)을 활용할

13) 실제 조선은 일본군의 주요 복상라인 추풍령 방면에는 右防禦使로 趙倬, 조령 방면에는 都巡邊使로 신립, 죽령 방면에는 左防禦使로 成應吉을 파견하고, 대구에는 巡邊使로 이일을 보내어 일본군을 저지하게 하였다.

14) 모든 장수를 감독하는 都體察使로 유성룡이 임명되었지만, 유성룡은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성판윤이었던 신립이 都巡邊使가 되어 조선의 주력군을 인솔하였다. 유사시 京將을 파견하여 지방군을 지휘하게 하는 것은 제승방략의 지휘체계가 활용된 것이다(서태원, 「壬辰倭亂에서의 地方軍 指揮體系」, 『실학사상연구』 19:20, 역사실학회, 2001, 324쪽).

15) 조정은 육군을 활용하여 일본군의 복상을 조령, 죽령, 추풍령에서 차단하고, 수군으로 왜선을 공격하여 일본군의 복상을 지연시키며, 근왕병을 편성하여 반격을 준비하고자 하였다(張學根, 「임진왜란기 官軍의 활약」, 『韓國史論』 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79~80쪽; 박재광, 「壬亂 초기전투에서 官軍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77쪽; 서태원, 앞의 논문(2001), 324쪽; 이현중, 「申立에 대한 修正的 批判 - 彈琴臺 戰鬪를 中心으로 -」, 『東義史學』 9:10, 동의대학교 사학회, 1996, 96쪽).

수 없으니 들판에서 한바탕 싸우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장계를 올려 이 일을 용서하여 종군(從軍)하게 해서 공로를 세우도록 청하고 드디어 군사를 인솔하여 도로 충주성으로 들어갔다. … 군사를 인솔하여 탄금대(彈琴臺)에 나가 주둔하여 배수진을 쳤는데, 앞에 논이 많아 실제로 말을 달리기에는 불편하였다.¹⁶⁾

적보다 열세인 상태에서는 주변의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아군에게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여 적을 아군이 원하는 장소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일은 일본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조령을 이용하여 방어를 하자고 건의하였지만, 신립은 기병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고 탄금대에 배수의 진을 쳤다.¹⁷⁾ 조령의 경우 부산으로 상륙한 일본군이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소백산맥의 주요 고개이다. 특히 조령은 부산과 한양으로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고개이자, 요충지인 소백산맥 남쪽의 상주와 북쪽의 충주를 연결하는 교통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방어상 핵심지역이었다.

만약 신립이 적정을 정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계획을 수립했다면, 탄금대의 배수진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립은 단월역에 병력을 주둔시켜 놓은 상태에서 조령으로 정찰을 다녀왔다. 신립은 이일의 보고를 통해 일본군의 정보를 접수하고, 조령을 직접 정찰하여 일본군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야 탄금대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당시 외방의 군사는 모이지 않고 도성에는 전후하여 대부분의 장정들이 거의 징발되었으므로 도원수 역시 군사가 없었다. 상주에서 패배한 보고가 이르고 신립(申砮) 또한 비밀히 아뢰기를 ‘적의 기세가 매우 드세니

16)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일(경인).

17) 한편 기병이 평지전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산악전에서 기병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보병보다 상당한 전과를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조령은 642m 높이의 고개로 북쪽 마역봉(925m)과 남쪽 조령산(1,026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령은 너무 험준했기 때문에 기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성으로 후퇴하여 지키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¹⁸⁾

원래 신립은 도성으로의 후퇴를 건의하였으나 탄금대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을 보면, 당시 신립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림 1〉 신립의 방어진지 이동상황¹⁹⁾

도성으로의 후퇴가 불가한 시점에서 신립은 충주 일대에서 일본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만 하였다. 이일의 상주 패배 후, 당시 신립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조령, 단월역, 충주성, 탄금대를 중심으로 하는 차후 방어계획의 수립이었다. 그렇다면 충주 일대 주요 지점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조령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이다. 기본적으로 소백산맥의 조령은 천혜의 험지이기 때문에 방어에는 상당히 유리하였다. 충주에서 조령

18)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4일(계묘).

19) 기본 사진은 구글 위성사진(<http://earth.google.com>)을 이용하였다. ①은 충주로 진입하는 기본적인 길이며 ②는 또 다른 소로이다.

까지의 거리는 약 30~40km에 해당하며, 도보로 10시간 이상 행군을 해야 한다. 신립은 4월 27일 단월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고, 4월 28일 탄금대에서 전투가 벌어지므로, 조령으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는 하루 정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신립은 자신의 장기인 기병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령 방어를 포기하였다.

그 외에 고려할 점은 조령 정상부를 중심으로 진을 칠 경우 추후 보급에 불리할 수 있으며, 추풍령과 죽령을 통해 우회한 일본군에 의해 후방이 차단되어 고립될 가능성이 있었다.²¹⁾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군은 원래 죽령을 넘어 북상하고자 하였지만, 실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군을 뒤이어 조령을 통해 충주로 진군하였다.²²⁾ 그런데 만약 고니시군이 조령 밑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면, 가토군은 계획대로 죽령을 통해 우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경우 조령 정상부에 진을 친 조선군은 고립되어 앞뒤에서 협공당하는 처지에 놓였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립의 조선군이 일본군의 북상 속도를 늦추어, 한양 주변으로 조선군이 집결하고 편성하는 시간을 벌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외방의 군사는 모이지 않고 도성에는 전후하여 대부분의 장정들이 거의 징발되었다”²³⁾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조선군의 동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립은 자신이 보유한 병력을 최대한 보존하여 일본군과 결전을 치루어야만 하였다.

둘째, 단월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이다. 단월역 일대는 지대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적당한 배후 산지가 있고 앞에는 달천이 흐르고 있어

20)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 따르면, 신립은 4월 26일에 충주에 도착하였고, 4월 27일에는 조령을 정찰하였으며, 4월 28일에는 탄금대 전투를 벌인 것으로 되어 있다.

21) 조령 자체도 현재의 관문이 있는 새재 외에 큰 새재, 작은 새재, 하늘재 등 몇 개의 통로가 더 있기 때문에, 혼련과 병력이 열세인 병사들을 데리고 이 곳을 한꺼번에 막는 것은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다(이헌중, 앞의 논문(1996), 23쪽).

22) 일본군의 제1군은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의 18,700명으로 동래-대구-상주-조령 방면으로, 제2군은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22,800명으로 동래-경주-군위-죽령 방면으로 북상하였다. 한편 제3군은 구로다 나가마사 휘하의 11,000명으로 다대포-김해-성주-추풍령 방면으로 북상하였다.

23)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4일(계묘).

자연해자 역할을 한다. 조령을 지난 일본군이 충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지이다. 남쪽에서 충주로 진입하는 주요 교통로는 단월역을 경유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 충주로 진입하는 길은 대림산 우측과 남산의 좌측 사이에 난 소로가 하나 더 있다.²⁴⁾ 험난한 조령을 넘은 일본군이 이 정도 소로를 넘지 못하거나, 이 소로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²⁵⁾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군의 일부가 우측의 소로를 이용하여 충주성을 직접 공격하거나 단월역에 진을 친 조선군의 배후를 공격한다면, 조선군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7일 신립이 단월역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적이 벌써 충주로 들어왔다”고 하는 자가 있자 곧 그를 베었다.²⁶⁾ 이는 군령의 위엄을 보여주는 실례이지만, 단월역을 경유하지 않고 충주로 진입하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단월역과 우측 소로를 모두 지키고자 한다면, 원래부터 일본군보다 소수였던 신립의 부대는 병력이 분산되어 방어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충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이다. 충주성은 성곽이기 때문에 일반 야지보다 기본적인 방어력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병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고정적인 진지이므로 기병의 다양한 진법을 활용하는 것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²⁷⁾ 그리고 동래전투에서 보듯이 당시 일본군의 공성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일본군이 충주성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외곽을 포위할 경우 특별한 구원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던 조선군의 입장에서 고립될

24) <그림 1>의 ②번 길. 이는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근세 지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이 소로는 등산길로 이용되고 있다.

25)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던 일본군에게 한국어 습득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어회화집이 만들어질 정도였다(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고재, 2012, 70쪽). 이와 더불어 조선인 포로들을 길잡이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소로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26)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27) 탄금대 전투 패배 후 권율의 행주성 대첩은 수성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조선전기 진법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이흥두, 앞의 논문(2006), 288쪽). 탄금대 전투 당시는 守城보다는 기병중심의 野戰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일본군의 일부가 충주성을 견제하면서 대치하는 사이, 축차적으로 북상한 일본군 주력부대가 그대로 한양으로 진격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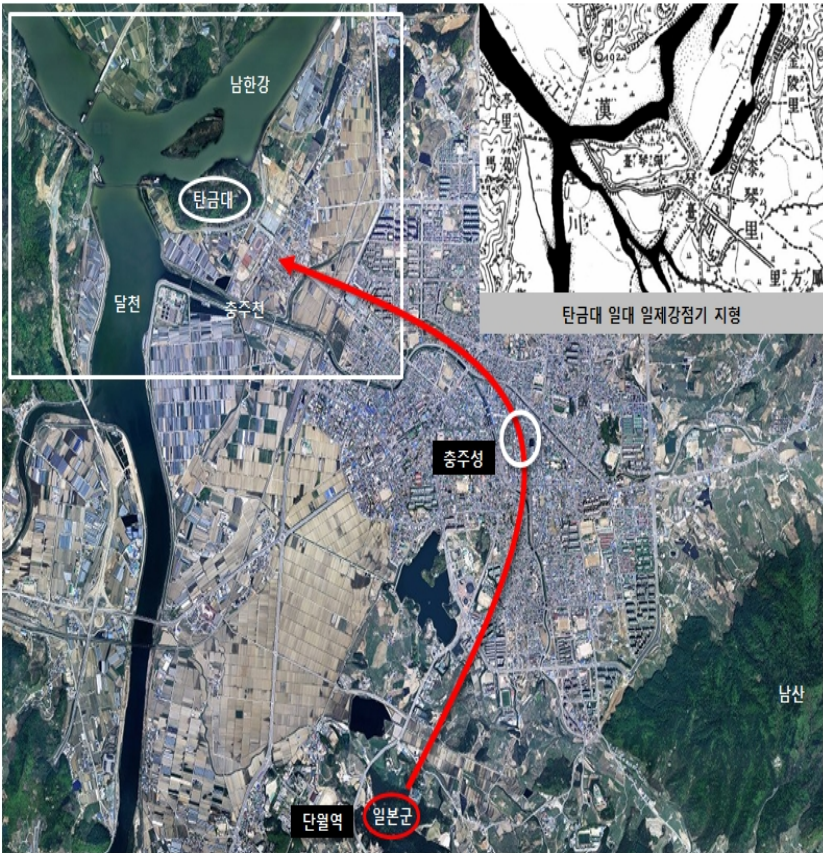
넷째, 탄금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이다. 탄금대는 기본적으로 배후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후방의 습격에 대한 염려가 없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병사들을 한곳에 집중시켜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험한 배후 산지가 없어 방어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퇴각로가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하고 나면 병력을 수습을 할 여지가 없다. 아울러 일본군이 접근로를 틀어막고 대치할 경우 추후 보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고립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

〈표 1〉 각 방어거점의 장단점

구 분	방어 지형	기병 활용	병력 집중	추후 보급	고립 가능성
조 령	유리	불리	유리	불리	있음
단월역	유리	제한	불리	보통	보통
충주성	보통	제한	유리	보통	있음
탄금대	보통	유리	유리	제한	있음

이렇게 볼 때 조령, 단월역, 충주성, 탄금대 모두 방어에 장단점이 존재하였으며, 특별히 우월한 방어지점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선군은 일본군에 비해 병력이 열세였기 때문에, 병력을 분산하여 각개 격파당하기보다는 병력을 결집하여 결전을 치를 필요가 있었다.²⁸⁾ 신립은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두각을 드러낸 당시 최고의 무장이었다. 이런 그가 뚜렷한 이유없이 탄금대에 배수진을 쳐서 조선군의 몰살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8) 신립의 조선군은 약 10,000여 명에 불과하였지만, 일본군은 일차적으로 조령·죽령·추풍령으로 북상하던 고니시 유키나가군 18,700명, 가토 기요마사군 22,800명, 구로다 나가마사군 11,000명만 해도 5만 명을 상회하였다.



〈그림 2〉 탄금대의 지형과 일본군의 예상공격로²⁹⁾

탄금대 일대의 지형을 보면 탄금대의 배후에는 남한강과 달천이 흐르고 있고, 전방으로는 넓은 개활지가 펼쳐져 있다. 탄금대와 충주성 사이에는 충주천과 그 지류가 개활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충주 시가지 이외에는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의 탄금대 지형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탄금대 일대의 지형이 도움을

29) 기본 사진은 네이버 위성사진이며, 오른쪽 상단의 지형도는 朝鮮總督府, 『1:50000 地形圖』, 京城: 朝鮮總督府, 1918의 일부분이다.

줄 수 있다. <그림 2>의 오른쪽 상단 지도를 보면, 탄금대 배후의 남한강과 달천 이외에, 탄금대 앞쪽의 충주천과 오른쪽의 호수들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탄금대 주변에 모래밭이 넓게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과 100년 전의 지형이 현재와 상당히 달랐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는 현재보다 600여년 전이므로, 강안 주변의 퇴적작용이 훨씬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강, 달천, 충주천 등과 그 지류의 깊이와 폭은 현재보다 깊고 넓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보로 충주성에서 탄금대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지금도 이용되고 있는 ‘탄금대로’ 하나가 거의 유일하다.³⁰⁾ 육로를 따라 북상한 일본군은 기본적으로 선박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탄금대를 공격할 경우 서쪽 방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탄금대는 일본군이 한양으로 진군하기 위한 주요 공격루트가 아니었다. 일본군이 충주를 경유하여 북상하기 위해서는 단월역에서 서쪽으로 달천을 건너면 된다. 이에 일본군이 탄금대의 조선군을 무시하고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충주는 중부지방의 교통 결절지로서 일본군이 한양으로 북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충주를 장악하지 못할 경우 보급로가 차단되어, 추후 병력과 군량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신립도 일본군이 탄금대에 주둔한 조선군을 무시하고 북상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임진왜란 당시 탄금대는 주 접근로가 동쪽 한곳으로 제한되고, 주위가 자연해자로 둘러싸여 측후방의 기습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측후방에 대한 방어를 모두 동쪽 진입로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전투력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전면에는 신립이 직접 통제가 가능한 기병을 중심을 배치하고, 그 후면에 각지에서 모여든

30) 물론 과거의 지형을 명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해안선에 가까운 섬이 사주나 사취에 의해서 육지와 연결되는 陸繫島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탄금대 주위에는 ‘섬들’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병력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오합지졸 가운데 그나마 운용이 가능한 기병의 활용과 급히 징집된 병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탄금대의 지형이 조령보다 효과적인 장소였을 지도 모른다.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적을 유인하여 전투를 치루는 것도 장수의 주요 덕목 중의 하나이다. 신립은 우세한 적을 탄금대로 끌어들여 전투를 치룬 것이다.

3. 탄금대의 기상과 조선군의 방어체계

신립이 탄금대를 방어거점으로 선정하는 것에 있어 고려되지 않은 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풍향이다. 전근대 전투에 있어 풍향은 지형과 함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17세기 초 명(明)의 후금에 대한 반격 전쟁에 참여한 조선군은 포수(砲手)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초기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사격하기 어렵게 되면서 크게 패하고 말았다.³¹⁾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당시 한양 도성을 점령한 반군과 이를 진압하기 위한 관군이 도성 서북의 안현(鞍峴 : 무악재)에서 대치하였다. 이때 동풍이 불어 서북방향으로 안현을 공격하던 반군이 유리하였으나, 갑자기 풍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안현에서 방어하던 관군에게 유리해졌다.³²⁾ 결국 풍향이 바뀐 시점을 계기로 안현 전투는 관군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괄의 반란은 진압되었다.³³⁾ 안현 전투에서 관군과 반군 모두 항왜(降倭)³⁴⁾를 활용하여

31) 노영구, 「16~17세기 近世 일본의 戰術과 조선과의 비교」, 『軍史』 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261쪽.

32)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2월 11일(을미); 『연려실기술』 권24, 「인조조고사본말」, 이괄의 변.

33) 안현 전투의 전개과정에 관해서는 이상훈, 「인조대 이괄의 난과 안현 전투」, 『한국군사학논집』 69-1,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3 참조.

34) 항왜는 항복한 일본군이라는 의미로, 항왜의 중요성은 이미 임진왜란 당시부터 인식되어 군사 다방면에 활용되었다(韓明基, 「丁卯胡亂 무렵, 朝鮮의 對日政策과 그 역사적 의미」,

조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풍향이 조선군의 주력무기인 활과 일본군의 조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풍향은 원거리 무기의 사거리를 제한하거나 연장시키고, 명중도를 낮추거나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충주의 풍향은 어떠하였을까? 풍향은 계절별,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과거의 풍향을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의 풍향을 바탕으로 당시의 풍향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내륙도시들은 일반적으로 봄에 바람의 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2월부터 6월까지 바람이 크게 분다. 충주 또한 이와 다르지 않으며, 4월에 가장 큰 바람이 분다.³⁵⁾ 1951년부터 2008년까지 관측된 충주의 풍향계수는 서풍 > 남서풍 > 북서풍 순이며³⁶⁾,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서풍이 주풍향이다.³⁷⁾ 즉 충주는 계절과 상관없이 서풍이 가장 많으며, 특히 봄철에 서풍이 강하게 부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주는 남한강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지형 특성 때문에 충주는 항시 서풍이 불어오는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주지역의 풍향을 고려하면서 당시 조선군과 일본군의 원거리 무기에 대해 살펴보자. 조선군 승자총통(勝子銃筒)과 일본군 조총의 사거리에 대한 견해는 학자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승자총통의 경우 최대사거리가 600보에 달했으며³⁸⁾, 조총은 최대사거리가 500m에 달했다고 한다.³⁹⁾

『大東文化研究』 5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232쪽). 이러한 항왜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5천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항왜의 육상전투력은 상당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降倭의 留置와 활용」, 『역사와 세계』 32, 효원사학회, 2007, 104~108쪽).

35) 윤재욱, 「해안도시와 내륙도시의 계절별 바람특성 연구」, 『한국풍공학회』 5-2, 한국풍공학회, 2001, 112쪽.

36) 황규석·김용식·정석원, 「8풍향에 대한 지역별 풍향계수 추정」, 『한국풍공학회논문집』 15-4, 한국풍공학회, 2011, 153쪽.

37) 윤재욱, 앞의 논문, 2001, 113쪽.

38) 李曙, 『火砲式諺解』, 1635의 勝字銃筒條.

39) 洞富雄, 『鐵砲：傳來とその影響』, 東京：思文閣出版, 1991, p.79.

〈표 2〉 조선군과 일본군의 원거리 무기⁴⁰⁾

구 분	승자총통	조 총	편 전
최대사거리	766m	500m	380m
유효사거리	150m	100m	80m

승자총통은 조선군의 대표적인 원거리 무기로서, 선조 초기에 경상병사 김지가 만들어 여진족을 물리칠 때 큰 효과를 발휘하였던 소형 총통이다.⁴¹⁾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권율 장군도 주요 화기로 사용하였으며, 최대 사거리는 766m에 달했다.⁴²⁾ 그러나 승자총통은 가늠자와 가늠쇠가 없었고 1분에 1회 정도 밖에 발사할 수 없었으며⁴³⁾, 명중률도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리고 편전(片箭)은 일반적인 장전(長箭)에 비해 길이가 짧고 사거리가 긴 화살을 의미하는데⁴⁴⁾, 380m까지 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조총은 일본군의 전체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수치적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전술적 중요성은 도입초기부터 상당히 주목되었다.⁴⁵⁾ 조총은 기존의 활보다 훨씬 원거리에서 사격할 수 있었으며, 명중률이 높았다.⁴⁶⁾ 조총은 사거리가 100~500m인데, 명중률이 높은 거리는 100m 이내였다.⁴⁷⁾

이러한 상황에서 서풍이 불면, 원거리 무기는 조선군에게 유리하게 작용

40) 金良洙, 「壬辰倭亂 時期的 火器研究」, 淸州大 碩士學位論文, 2003, 21쪽의 〈표 3〉과 김병륜, 「망암 火車의 구조적 특성과 실효성」, 『공자학』 21, 한국공자학회, 2011, 89쪽 그리고 노영구, 「16~17세기 鳥銃의 도입과 조선의 군사적 변화」,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115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1)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221쪽. 총통의 종류에 관해서는 강신엽, 『조선의 무기』 I·II, 붕명, 2004 참조.

42) 金良洙, 앞의 논문(2003), 17쪽.

43) 노성환, 「조총을 통해서 본 한일관계」, 『동북아시아문화연구』 2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5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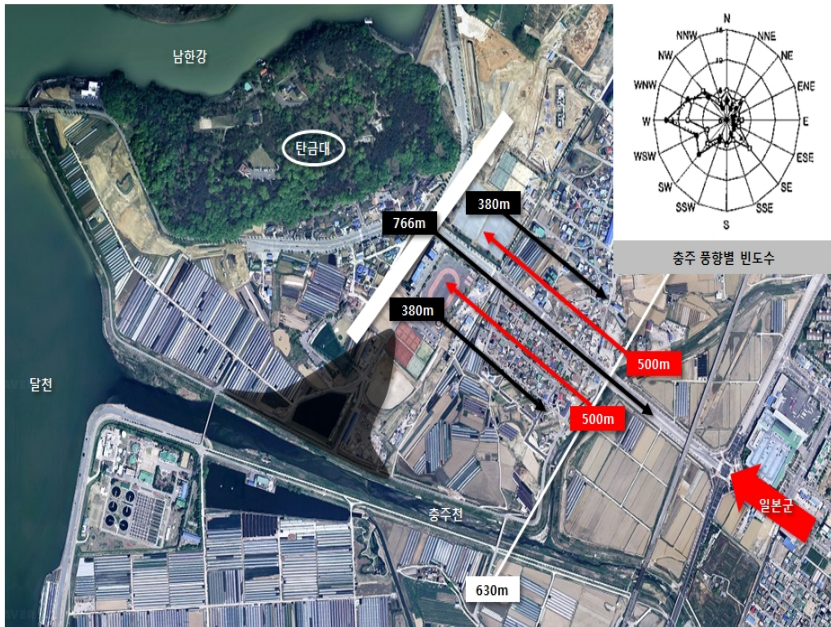
44) 편전은 애기살로도 불리며, 일반적인 화살의 절반 정도인 30cm 남짓이다.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통아 속에 편전을 넣고 사용하였다.

45) 노영구, 앞의 논문(2012), 114쪽.

46) 조총은 구경에 비해 총열이 길어 추진력이 강하여 총탄이 곧바로 날아가고 관통력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조준기로 인해 명중률도 높았다(노영구, 앞의 논문(2012), 114쪽).

47) 金良洙, 앞의 논문(2003), 21쪽.

한다. 물론 조총의 경우 탄환이 작아 바람의 영향을 활에 비해 적게 받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풍을 받는 조선군의 승자총통과 활의 사거리는 길어지고 상대적인 명중률이 높아지는 반면, 역풍을 받는 일본군의 조총과 활의 운용은 그만큼 제한되게 마련이다.



〈그림 3〉 원거리 무기의 사거리와 탄금대의 풍향⁴⁸⁾

임진왜란 당시 탄금대 일대의 지형은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형이 강이나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 접근로는 동쪽일 수밖에 없었다. 탄금대의 조선군은 지형상 측후방의 기습 우려가 적은 상황이었다. 이에 가장 전면에 기병을 배치하고, 그 다음 창병과 궁병을 배치한 후, 가장 후면에는 승자총통을 배열하였을 것이다.⁴⁹⁾ 승자총통을 비롯한 조선 고유의

48) 기본 사진은 네이버 위성사진(<http://map.naver.com>)이며, 오른쪽 상단의 풍향도는 윤재욱, 앞의 논문(2001), 115쪽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49) 당시 조선군의 전술은 북방유목민족에 대항하기 위해 기병을 주력군으로 편성하고, 활과

총통들은 기본적으로 명중률에 제한 사항이 많았지만, 집중해서 운용할 경우 일정한 지역에 포진한 적 집단에 대한 탄막사격을 가할 수 있었다.⁵⁰⁾ 조선군은 먼저 승자총통으로 적의 대오를 흐트러 놓은 다음⁵¹⁾ 기병으로 적을 몰아세우는 전술을 준비한 듯하다. 기병의 공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다시 방어진으로 돌아와 궁병의 엄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일본군이 탄금대에 주둔한 조선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개활지를 지나야 한다. 그 다음 조선군의 승자총통이나 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엄폐할 수 있는 충주천의 지류까지 진출해야 한다. 조선군의 승자총통은 최대 사거리가 766m로 조총의 500m보다 길었지만, 명중률과 살상력이 떨어졌다.⁵²⁾ 조선의 총통은 기본적으로 좌우 사각 오차는 크지 않았으나, 사거리 오차가 큰 편이었다고 한다.⁵³⁾ 따라서 일본군이 충주천의 지류까지 진출하는 것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충주천 지류의 둔덕에 엄폐한 다음, 탄금대를 공격하기 위해 다시 둔덕 앞쪽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다. 일부 부대가 둔덕을 따라 조총으로 엄호를 하겠지만, 흐트러진 진영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마치 도하작전을 하는 부대처럼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탄금대에서 충주천 지류까지의 거리가 약 630m로, 조선군 활의 최대 사거리에서 벗어나 있다. 조선군이 충주천 지류를 넘은 일본군이

화기 등 원거리 무기와 결합시킨 전술체계였다(河且大, 앞의 논문(1990) 참조). 전투가 발생하면 창을 든 기병이 먼저 공격을 개시하고, 후면에 창을 든 보병이 후미를 보호하였으며, 좌우 측면은 騎射兵이 엄호하고 적에게 기습을 가할 때 이들이 먼저 적의 측면을 파고드는 방식이었다(최형국, 앞의 논문(2009), 15쪽).

50) 김병륜, 앞의 논문(2011), 66쪽.

51) 신립은 1583년(선조 16)에 발생한 尼湯介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미 승자총통을 사용하여 효과를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승자총통의 살상력이나 명중률이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을 것이다.

52) 유성룡의 『西厓先生文集』 권16, 『書壬辰事始末木兒輩』에 따르면, 승자총통은 소리만 요란할 뿐 명중하지 않아 조총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53) 김병륜, 「조선시대 화약무기 운용술」, 『학예지』 1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6, 78쪽.

진열을 정비하는 틈을 타 공격하자면, 오히려 조총의 사거리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즉 일본군은 조총부대가 충주천 지류 둔덕을 따라 엄호하는 사이 공격부대가 강 둔덕 위로 올라가 진열을 정비할 거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일본군의 공격부대와 조총부대가 모두 강 둔덕 위로 올라와 병행 공격을 한다면⁵⁴⁾, 훈련도가 높고 병력수가 많은 일본군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풍향이다. 탄금대 전투가 벌어진 시기는 4월 28일로 음력임을 감안하더라도 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던 시기임에 틀림없다(〈그림 3〉 참조). 이에 조선군 활의 최대사거리는 연장되는 반면, 일본군의 조총 최대사거리는 줄어들게 된다. 조선군은 순풍을 이용하여 기사(騎射)뿐만 아니라, 보병의 활도 일본군이 진열을 정비하는 곳까지 화살을 날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일본군은 역풍으로 조총의 사거리나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조선군이 궁병의 엄호 하에 기병을 이용하여 적의 진열을 흐트러트리거나 공격하는 것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탄금대 일대는 논과 수렁이 많아 기병의 기동이 곤란하였다고 한다.⁵⁵⁾ 그런데 그것은 조선군뿐만 아니라 일본군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이다. 일본군이 공격하거나 퇴각할 경우 비록 주력이 보병이라고는 하지만, 기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측후방 기습이 제한된 지형을 역풍 속에서 공격해야 하는 일본군을 상대로 기병을 잘 활용한다면 조선군의 승리도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신립이 조령, 단월역, 충주성을 모두 포기하고 탄금대에 배수의 진을 친 것은 지형과 기상을 감안할 때, 결코

54) 일본군은 적과의 대치상태에서 조총병이 먼저 사격하고 물러나 재장전을 하면, 이어 궁병이 활을 쏘아 조총병의 사격장전 시간을 메웠다. 조총병이 지속적으로 사격하여 적의 진열이 흐트러지면, 기마병이 돌격하고 창병이 그 뒤를 따라 백병전을 벌이는 전법을 구사하였다(박재광, 「전쟁사를 다시 쓰게 한 조총」, 『과학과 기술』 1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6, 34쪽).

55)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일(경인). 이러한 이유로 신립이 기병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전투에 패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신립이 사전에 이러한 지형임을 모르고 진을 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한편 단기 방어가 아니라 장기 방어를 위해서는 탄금대지역이 타지역보다 유리했을 지도 모른다. 수적인 우위를 보인 일본군이 충주 주변 일대를 점령하더라도 선박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금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루트는 정면 밖에 없었다. 반면 조선군은 초기에는 방어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추후 남한강을 통한 보급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⁶⁾ 남한강을 통해 군수물자와 병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다면, 임진왜란 전체의 흐름에서 일본군의 복상은 지체되고 조선군의 활동은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4. 탄금대 전투의 전개과정과 패배

탄금대 전투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선조수정실록』을 살펴보자.

① 이 달(4월) 27일에 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 단월역에 이르렀는데, 목사 이종장(李宗長)과 이일이 모두 척후로 전방에 있다가 적에게 차단당하여 정세 보고가 단절되었으므로 신립이 또 알지 못하였다. ② 이틀 날(28일) 새벽에 적병이 길을 나누어 대진(大陣)은 곧바로 충주성으로 들어가고, 좌군(左軍)은 달천(達川) 강변을 따라 내려오고, 우군(右軍)은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상류를 따라 강을 건넜는데 병기가 햇빛에 번쩍이고 포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③ 신립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곧장 말을 채찍질하여 주성(州城)으로 향하여 나아가니 군사들은 대열을

56) 충주에서 남한강을 따라 10여 km를 하류로 내려가면 엄정면 목계리에 ‘목계나루’가 있다. 조선시대 중부지방의 주요 산물의 집산지로 남한강변의 수많은 나루터 중 가장 번성하던 나루였다. 인근에는 可興倉이 위치하여 충청도 일원은 물론 경상도에서 집산된 세곡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루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고 숨어버렸다. 성중의 적이 호각소리를 세 번 발하자 일시에 나와서 공격하니 신립의 군사가 크게 패하였으며, 적이 벌써 사면으로 포위하므로 신립이 도로 진을 친 곳으로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다투어 물에 빠져 흘러가는 시체가 강을 덮을 정도였다.⁵⁷⁾

먼저 ①을 보면, 신립은 단월역에 척후를 배치하여 적정을 살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척후가 일본군에게 차단되어 적의 정확한 규모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⁵⁸⁾ 단월역의 조선군 척후가 고립된 것은 일본군의 일부가 대립산과 남산 사이의 우회로를 이용하여 단월역의 배후를 차단했음을 시사한다.⁵⁹⁾ 신립이 척후가 차단당할 경우를 감안하여, 이중 삼중으로 경계태세와 연락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것은 주요 패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②를 보면, 일본군은 좌군, 중군, 우군의 3부대로 나누어 진군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에 따르면 일본군의 3부대는 동시에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주성을 공격한 중군과 달리 달천을 따라 움직인 좌군과 동쪽 산기슭을 따라 움직인 우군은 크게 우회하였다. 좌군과 우군의 이동로를 보면 조선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회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병기가 햇볕에 번쩍이고 포성이 천지를 진동시킨 것’은 충주성을 공격한 중군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③을 보면, 일본군의 중군이 충주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자, 조선군은 기병을 중심으로 충주성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고 뒤따르던 보병은 대열에서 뒤쳐졌음을 알 수 있다. 신립을 뒤따르던 병사들이 흩어지고 숨어버렸다고 기록된 점에서 조선군의 공격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는 기병의 돌격 속도를 보병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57)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일(경인).

58) 척후를 활용하지 않아 적에 관한 정보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패배의 원인이다(강성문, 『幸州大捷에서의 權慄의 전략과 전술』,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125쪽).

59) <그림 1>과 <그림 4> 참조.

발생하는 일시적 혼란일 수도 있다.⁶⁰⁾ 조선군의 기병이 적과의 우세한 접전을 벌일 경우 뒤따르던 보병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일본군이 일시에 나와 포위 공격하자 신립의 군대는 패배하였다.

신흠(申欽)은 신립을 따라 탄금대 전투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가깝게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⁶¹⁾ 신흠은 “적이 우리 군사의 좌측으로 돌아나와 동쪽과 서쪽에서 끼고 공격해 오는 바람에 우리 군대가 크게 어지러워졌다”고 하였다.⁶²⁾ 조선군은 일본군이 좌측으로 돌아나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진영이 흐트러졌음을 알 수 있다. 척후부대가 차단된 상태에서 일본군의 좌군과 우군의 이동은 조선군이 미처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적이 복병(伏兵)을 설치하여 아군의 후방이 포위되어 대패하였다”고 한다.⁶³⁾ 한편 포르투갈의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약하였던 루이스 프로이스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선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아무 깃발도 울리지 말고 의기(意氣)를 잃은 것처럼 하면서 진격시켰고, 추후에 깃발을 일제히 펴리게 하여 공격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⁶⁴⁾ 이를 통해 볼 때 일본군의 중군은 요란히 충주성을 공격하여 조선군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좌군과 우군은 충주성을 크게 우회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조선군의 전열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일제히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이스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군은 진을 정비하고 달모양으로 전투 대형을 펼쳤으며, 일본군이 소수인 것을 보고 일본군의 중앙을 공격하면서

60) 『五衛陳法』, 「勇怯之勢一」에 따르면, 공격할 때 기병은 말을 달리고 보병은 구보로 돌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보병이 기병에 뒤쳐진 것은 흠어진 것이 아니라 속도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1) 정출현,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유록>」, 『古小說研究』 29, 한국고소학회, 2010, 154쪽.

62) 申欽, 『象村先生集』 권56, 「諸將士難初陷敗志」.

63)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64)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관해서는 국립진주박물관,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토요토미 히데요시』, 부키, 2003 참조.

포위하러 하였다”고 되어 있다.⁶⁵⁾ 달모양의 전투대형은 조선전기 전투대형의 하나인 언월진(偃月陣)으로 여겨진다.⁶⁶⁾ 조선군이 포진한 상태에서 상대적 소수인 일본군을 포위 공격하고자 하였고, 이때 일본군은 조선군의 좌우 측면을 공격하여 조선군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매복한 일본군의 좌군과 우군은 조선군의 시야가 제한된 곳을 이용하여 은밀히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⁶⁷⁾

만약 일본군의 전군이 한꺼번에 진군해 왔다면 신립은 선불리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립은 적의 규모를 오산하여 선제공격에 나서기에 따라 패배하였던 것이다. 즉, 신립이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것은 방어계획상 큰 문제가 없었지만, 척후를 차단당해 적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기 때문에 패배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신립이 일본군의 중군을 선제공격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패배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원래 계획대로 탄금대에 방어진을 고수하였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신립은 왜 방어를 하지 않고 일본군을 선제공격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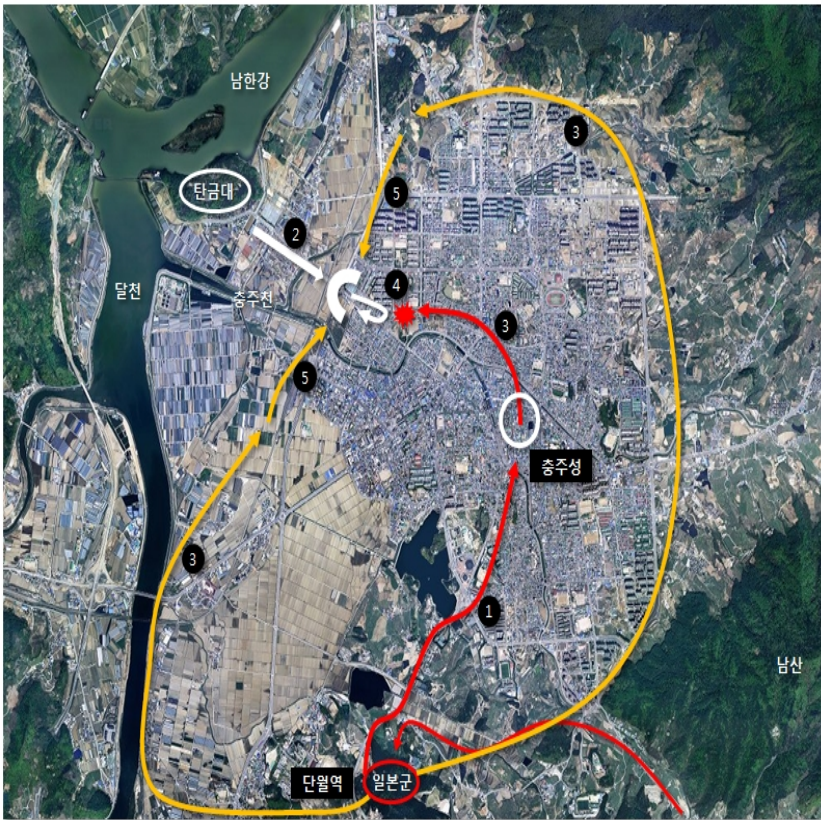
신립은 분명 일본군의 병력이 축차적으로 증가하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신립은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기 전에 선발대격으로 충주성을 공격한 일본군의 중군을 먼저 제압하여 사기를 올리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령을 통과하여 강행군을 지속한 일본군은 충주성을 점령하긴 하였지만, 배후의 탄금대에 조선군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다시 공격에 나서야만 했다.⁶⁸⁾ 충주성을 공격한 일본군의

65) 국립진주박물관, 앞의 책(2003), 211쪽.

66) 최형국, 앞의 논문(2009), 26쪽.

67)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0일(기사)에 따르면, 선전관 민중신은 선조에게 탄금대 전투의 패배원인으로 적이 새계를 넘어와 밤중에 돌격해 왔기 때문에 패배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본군의 좌군과 우군은 중군과 달리 야간을 이용하여 은밀히 매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68) 일본군은 4월 13일 부산에 도착하여 4월 28일 충주에서 전투를 벌였다. 그러므로 15일 간 직선거리로만 23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해왔다. 당시 일본군이 조선군의 규모가 만



〈그림 4〉 탄금대 전투의 전개과정

규모가 그리 많지 않음을 본 상태에서, 풍향도 순풍이라 기병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던 것이다. 남한강과 인접한 탄금대 일대는 길이 협소하고 논과 수령이 많아 기병을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탄금대에서 충주성 방향으로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 기병을 활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본군의 좌군과 우군의 매복이 없었다면, 신립의 선제공격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만치 않은 것을 보고 적지 않게 주저하자, 고니시 유키나가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병사들을 격려하였다고 한다(국립진주박물관, 앞의 책(2003), 211쪽).

신립군은 일반적으로 충청도 병사 8,000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립이 한양에서 충주로 내려올 때 인솔해 온 병력도 수천 명에 달했다고 전해진다.⁶⁹⁾ 그리고 앞서 상주에서 패배한 이일의 경상도 병사도 일부 합군하였음을 감안해야 한다.⁷⁰⁾ 따라서 충청도 병사 외에 정확한 추가 병력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약 10,0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탄금대 전투 이후 조령을 담당하던 훈련주부(訓練主簿) 신충원이 “신립은 조령을 지키지 않고 달천[탄금대]에 주둔하여 한 차례의 접전으로 1만 군사를 잃어버렸다”고 상소문을 올린 점도 이를 방증한다.⁷¹⁾

한편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제1군은 규슈의 병력을 중심으로 18,700명이었다. 그런데 단월역을 점령한 후 부대를 나누어, 고니시 유키나가가 중군을,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좌군을, 마츠우라 시게노부(松浦鎮信)가 우군을 담당하였다.⁷²⁾ 그렇다면 당시 고니시군의 병력 구성을 어떠한지 살펴보자.

〈표 3〉 고니시 유키나가의 병력 구성⁷³⁾

장 수 명	병력 수	합 계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7,000명	18,700명
소 요시토시(宗義智)	5,000명	
마츠우라 시게노부(松浦鎮信)	3,000명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2,000명	
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	1,000명	
고토 스미하루(五島純玄)	700명	

69)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일(경인)에는, 신립이 거느린 병사는 도성의 무사와 활을 잘 쓰는 자가 수천 명이였으며, 인근 고을에서 거둔 군사가 8,000명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70)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일(경인)에는, 이일이 상주에서 병사를 불러 모았을 때 수백 명에 불과하였으나, 추가로 모집하여 대오를 편성할 때는 총수가 6,000여 명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71) 『선조실록』 권28, 8월 14일(갑인).

72) 徐仁漢, 『壬辰倭亂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7, 50쪽.

73) 일본군의 병력 구성은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中)』, 東京: 吉川弘文館, 1969, 104쪽과 국립진주박물관, 앞의 책(2003), 191~192쪽 참조.

중군인 고니시의 병력이 7,000명, 좌군인 소의 병력이 5,000명, 우군인 마츠우라의 병력이 3,000명이다. 나머지 병력은 예비대 내지는 전투지원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부대 편성 때문에 일본군의 규모에 대한 왜곡현상이 나타났다. 충주성을 공격하여 점령한 일본군의 중군 7,000명은 충주성에도 일정한 부대를 남겨두어야만 했다.⁷⁴⁾ 이에 조선군 10,000여 명은 상대적 병력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충주성을 공격하여 함락할 경우 진영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신립은 일본군이 충주성을 점령한 전후가 결정적 전투 시점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다. 기병을 활용에 자신이 있는 신립은 순풍을 타고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그 이전 북방의 여진족을 공격할 때에도 자주 사용하던 전술이었다.⁷⁵⁾ 신립은 1583년 경원부(慶源府)가 여진족에게 포위되자 경기병을 거느리고 구원하였으며, 또 훈융진(訓戎鎭)이 포위되자 구원을 나가 적을 활로 공격하며 성안의 병사와 더불어 공격하였다.⁷⁶⁾ 이후 종성(鍾城)의 요새가 포위되자 경기병을 거느리고 구원에 나서 적을 물리쳤다.⁷⁷⁾ 이렇듯 신립은 적이 성을 포위공격하며 전열이 흐트러져 있을 때 기병으로 돌격하여 적을 물리치는 전법에 아주 능숙했다.

전면의 기병이 먼저 돌격을 하고, 뒤에 위치한 보병도 전진해 나갔다. 기병과 보병의 속도차에 의해 조선군의 진영은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니시는 좌군과 우군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다. 이에 조선군의 좌우 측면에 매복해 있던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조선군 기병과 대치하려던 중군과 충주성에 있던 잔류병도 총공격에 나섰다. 좌우측익이 공격당한 조선군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달아날 곳은 탄금대로 되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전세가 기운 상태에서 배수진을

74) 중군, 좌군, 우군의 편성을 최초 부대구성에 따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부대의 효율적 지휘를 위해 견제를 유지하였을 확률이 높다. 또한 탄금대 전투 이전에 몇 차례 전투를 치루었기 때문에 실제 병력은 7,000명보다 다소 줄어들어 있었을 것이다.

75) 조선전기 여진족에 대한 기병 전술은 李弘斗, 「朝鮮初期 野人征伐와 騎馬戰」, 『軍史』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0; 盧永九, 앞의 논문(2002); 최형국, 앞의 논문(2009) 참조.

76)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2월 1일(갑신).

77)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5월 1일(임오).

쳐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었다.

신립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조선의 중앙군 주력은 상실되었고, 이후 임진왜란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⁷⁸⁾ 탄금대 전투의 패배원인으로 신립이 밤낮으로 잠을 잤다⁷⁹⁾, 신립의 군율이 해이했다⁸⁰⁾, 장수와 병사간의 소통이 되지 않았다⁸¹⁾, 신립이 술에 취해 있었다,⁸²⁾ 신립이 포악하고 일본군을 업신여겼다⁸³⁾ 등등 장수로서의 자질을 언급한 견해도 많이 제시되었다.⁸⁴⁾ 그렇지만 이는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신립은 도망치거나⁸⁵⁾ 유언비어를 퍼뜨리는⁸⁶⁾ 병사는 가차없이 참수하였으며, 하극상을 일으킨⁸⁷⁾ 병사 또한 참수하여 군령을 엄히 하고 사기 저하를 막는데 주력하였다.

물론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본군에게 포위를 당한 점, 기병을 중심으로 돌격을 감행하여 스스로 진영을 무너뜨린 점, 배수진으로 인해 퇴각로가 없어 부대 재편성이 불가능했던 점 등은 장수로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당대의 인물이 신립이 조령을 포기하고 탄금대를 선택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평가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⁸⁸⁾ 그렇다고

78) 임진왜란은 조선의 군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임진왜란 이전의 공병제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병제로, 番上 병제는 長番 병제로,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김종수, 「임진왜란 전후 중앙군제의 변화」, 『軍史』 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79) 朴東亮, 「寄齋史草 下」, 『국역 대동야승』 13권, 민족문화추진회, 1974, 203쪽. 이는 패전에 대한 책임을 신립에게 돌리고 싶던 보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관 박동량은 그대로 史草에 옮겨 적었다(정출현, 앞의 논문, 153쪽).

80)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 8월 28일(계사).

81) 『선조실록』 권65, 선조 28년 7월 24일(을미).

82) 『선조실록』 권185, 선조 38년 3월 23일(정유).

83)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2월 1일(임인).

84) 신립은 20여년에 걸쳐 무장으로서는 전투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고 군인으로서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므로, 탄금대 패전의 과오만 부각시켜 무능한 장수로 몰아세우는 결론적 인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이현중, 앞의 논문, 84쪽).

85)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2월 1일(갑신).

86)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87)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 10월 15일(을미).

88) 한편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신립의 탄금대 선정을 비판하였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남방의 制勝方略의 폐해를 언급하며 결국 鎭營體制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

하더라도 신립의 장수로서 자질이나 전략전술 능력이 부족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최초 한양으로의 철수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충주 일대에서 방어를 해야 했던 점, 탄금대의 지형이 방어와 기병 활용에 유리했던 점, 충주의 주풍향이 서풍이어서 원거리 발사무기에 유리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신립이 탄금대로 전투장소를 선정한 것은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에 따른 합리적 선택과정이었던 것이다.

5. 맺음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정은 일본군의 복상을 저지하기 위해 신립을 파견하였다. 신립은 최초 조령에서 일본군을 방어하려고 하였으나, 기병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충주의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다. 결국 신립이 탄금대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함에 따라,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북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다. 이에 신립은 조선을 위기에 몰아넣고 자질이 부족한 부정적 인물로 인식되고 말았다.

신립이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이유는 자신의 장기인 기병을 활용하고, 오합지졸인 병사들을 한곳에 집결시켜 놓기 위함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 신립이 탄금대에 진을 친 또 다른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지형과 기상이 중요한 선정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신립은 도성으로의 후퇴가 좌절된 상황에서 조령, 단월역, 충주성, 탄금대 등의 장단점을 심사숙고하였던 것 같다. 조령은 방어에는 용이하였지만, 기병을 활용할 수 없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았다. 단월역 또한 방어에 용이한 편이었지만, 충주로 진입하는 우회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였다(『선조수정실록』 권49, 선조 27년 3월 29일(정미)). 이와 관련하여 조정기, 『西厓柳成龍의國防政策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金九鎭, 「조선시대 6鎭 방어 전략 -《制勝方略》 체제의 연구-」, 『白山學報』 71, 백산학회, 2005 참조.

병력을 분산하여 주둔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충주성은 평지보다는 방어가 수월한 편이지만,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기병을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당시 탄금대 지역은 주변의 강과 호수가 지금보다 발달하여, 접근로가 동쪽 한곳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충주지역은 대부분 서풍이 부는 지역으로 봄철에는 풍속이 더욱 강하였다. 신립은 일본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일본군의 조총을 제한시킬 수 있으며, 조선군의 기병과 궁병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금대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그의 전투장소 선정은 당시 상황에서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니시 유키나가는 병력을 중군, 좌군, 우군으로 나누어, 좌군과 우군은 은밀히 기동하여 매복하게 하였다. 신립은 적의 매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의 병력수가 적은 것만 보고 탄금대에서보다 전진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때 일본군의 매복 작전이 성공하여 조선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신립은 척후부대가 일본군에게 차단되어 적정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고, 적의 규모를 오산하여 선제공격에 나섬으로써 패배하고 말았다. 배수진을 친 까닭에 병력을 재편성할 기회조차 없었다.

신립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한 점은 장수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신립의 장수로서의 자질이나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것 자체까지 한꺼번에 매도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신립은 당시 조선 최고의 장수였고, 지형과 기상을 고려하여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으며, 일본군의 선봉대를 섬멸하고자 과감히 공격에 나섰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3.28, 심사수정일 : 2013.5.14, 게재확정일 : 2013.5.22)

주제어 : 임진왜란, 신립, 탄금대 전투, 전투장소, 전술, 조선, 일본군, 조령, 충주, 상주

<ABSTRACT>

The selection of a battle place of Shinlip(申砬)
and the Tangeumdae(彈琴臺) Battle

Yi, Sang-hun

The Japanese Invasion broke out in 1592. It was defeated although shinlip(申砬) was stationed to tangeumdae(彈琴臺) of chungju(忠州). Why was shinlip stationed to tangeumdae of chungju? It is that geographical feature and the weather acted heavily. Tangeumdae had only one approach of japanese army(倭軍). And japanese musket(鳥銃) was inefficient-like because of the wind. Shinlip chose tangeumdae which can utilize a trooper(騎兵) effectively. It is concluded that battle place selection of shinlip was the best. Probably, the nature of general(將帥) must be reappraised although shinlip was defeated by the battle.

Key Words :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壬辰倭亂), Shinlip(申砬), Tangeumdae(彈琴臺) Battle, a battle place, Tactics, Chosun(朝鮮), Japanese army, Choryeong(鳥嶺), Chungju(忠州), Sangju(尙州)